Journal of the Humanities

인문연구

제72호 / 2014. 1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소 임원

소　　장: 최소인 교수(영남대 철학과)

부 소 장: 손승회 교수(영남대 사학과)

운영위원: 백승대 교수(영남대 사회학과)
백찬욱 교수(영남대 불어불문학과)
서인석 교수(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송병렬 교수(영남대 한문교육과)
이정희 교수(영남대 사학과)
이현진 교수(영남대 유아교육과)
정병석 교수(영남대 철학과)
우재호 교수(영남대 중국언어문화학부)

연구교수: 서용순(철학)

연 구 원: 곽은희(영남대 국어국문학과)
김기수(영남대 미학미술사학과)
김도은(영남대 일어일문학과)
김미경(영남대 사학과)
김세욱(영남대 철학과)
김영진(영남대 철학과)
이영희(영남대 일어일문학과)
이재숭(영남대 철학과)
정목주(영남대 국어국문학과)
홍은숙(동국대 경주캠퍼스 파라미타 칼리지 조교수)

편집간사: 곽은희(영남대 국어국문학과)
담　　당: 김세욱(영남대 철학과)

목 차

편집노트 ····· 편집위원회 / i

【일반논문】

담화에서의 언어 표현의 선택
-『여수엑스포 길라잡이』의 담화 분석 - ····· 최동주 ····· 1

조선후기 유배일기에 나타난 인정세태 기록의 특징 연구 ···· 조수미 ····· 31

전후 신진시인들의 언어인식과 '새로운 시'의 가능성
-『한국전후문제시집』(1961) 수록 산문을 중심으로 - ····· 김양희 ····· 61

김수영 시의 관계적 측면에서 본 여성 ····· 오채운 ····· 107

일제강점기 양복 담론에 나타난 근대인의 외양과 근대소설
····· 김주리 ····· 143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 '풍토(風土)'의 발견과 단카(短歌) 속의 '조선풍토'
- 시각화된 풍토와 문자화된 풍토의 비교 고찰 - ····· 김보현 ····· 181

제한된 여성의 위치와 전복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치유 효과
- 이디쓰 워튼의 「뒤늦은 연인들」, 「나머지 둘」을 중심으로 -
····· 손정희·이현주 ····· 209

불가촉천민 재현에 나타난 모방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내셔널리즘
- 물크 라즈 아난드의 『불가촉천민』을 중심으로 - ····· 김인숙 ····· 239

Fluxus in den frühen Werken von Nam June Paik zwischen
1959 und 1969 ····· Yun, Jong-Uk ····· 267

진국(辰國)과 진왕(辰王) - '한(韓)'의 성립과 관련하여 - ····· 김성한 ····· 289

1874년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민선의원설립 시기상조론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 김도형 ····· 327

임춘(林椿)의 유학사상 이해와 출처은현관(出處隱顯觀)의 특징
····· 엄연석 ····· 355

『한비자』에서 자유의 의미에 관한 일고찰 ····· 고은강 ····· 385

일본 주자학 도입기 유학자의 문제의식(1)
–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의 사상을 중심으로 – …… 김영수 …… 415
융복합에 관한 철학적 고찰 …… 이 엽 …… 451
平城京遷都と外京の設置について …… 임남수 …… 471
심령사진: 과학의 눈으로 본 혼령 …… 주형일 …… 497
영화 「아바타」에 나타난 신화성 연구 …… 김호영 …… 527
글쓰기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고찰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통한 피드백 중심 수업개발 – …… 김지선 …… 557
1960년대 초반 대구의 '영세민': '산체스네 아이들'과의 비교
…… 이동진 …… 587
해운대 관광의 탄생 – 식민지 시기 해운대온천의 개발과 표상 –
…… 조정민·이수열 …… 639
뒤르케임(E. Durkheim) 직업집단론의 현실적합성 연구
…… 백승대·안태준…… 667
초음파 연구의 초기 역사 – 감각 밖의 대상에서 실험 도구로 – … 구자현 …… 699

【휘 보】

【편집노트】

이번 호에는 총33편의 논문이 투고되었다. 지난 호보다 9편이 더 들어온 셈이다. 그 가운데 23편의 논문으로 72호를 꾸미게 되었다. 호를 거듭할 때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논문들이 많이 투고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 이번 호는 문학·역사·철학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사진·영화·관광 등 문화 분야의 논문들이 실려『인문연구』가 한결 더 풍성해졌다.

이번 호를 편집하면서 전통적인 분과학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학문 간의 소통과 융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융복합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이러한 움직임의 진지함을 보여준다. 문학과 문화, 문화와 일상사 간의 넘나듦 역시 눈에 띄는 터, 조선후기 유배일기에서 인정세태 기록의 흔적을 추적한 논문이나 일제강점기 양복담론에서 근대인의 외양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은 거대 담론의 성긴 그물이 포착할 수 없는 미세한 일상의 결을 섬세하게 들여다 보고픈 의욕과 맞닿아 있다. 1962년에 조사된 대구시의 빈민 지역은 1956년에 조사된 멕시코시티의 빈민 지역과 비교되면서 '다시 쓰기'의 대상으로 부상한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은 '미약한 지역 공동체 속에서 강력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한 덕분이라는 분석은,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지, 국가 중심의 개발 서사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현재의 우리 삶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도 눈에 띈다. 현대사회의 아노미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직업집단의 재구성을 주장한 뒤르케임을 조명한 논문, 불행했던 여성이 전복적인 글쓰기를 통해 치유하는 과정을 조명한 논문,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서구식 모델이 아닌 '다른 사유'가 필요하다는 논

문들은 모두 이러한 예일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 대안을 모색하는 의욕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적 성찰의 시발점일 것이다.

다음 호부터는 이러한 우리의 의욕과 문제의식을 좀더 첨예화하고자 '특집'을 마련할 생각이다. 각 호의 '특집'들은 모두 『인문 연구』의 방향과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소중한 걸음이 되리라 믿는다. 이번 호에 투고하였으나 싣지 못한 논문들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을 표한다. 앞으로도 『인문연구』에 수준 높은 논문들이 투고되고 게재되길 바란다. 바쁜 가운데에도 심사자를 섭외하고 고견을 주신 편집위원과 간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